

월드와치리스트[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소개

오픈도어선교회는 1975년 브라더앤드류가 공산화 되어 신앙의 자유가 없는 폴란드 교회에 성경을 전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계3:2)는 소명에 따라 지금까지 한결같이 박해 받는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1989년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성경을 동유럽으로 반입할 필요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사역의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전세계의 박해의 정도와 박해 받는 기독교인의 수를 객관적으로 지도로 나타낸 월드와치리스트(세계 기독교 박해지수)입니다.

1. 월드와치리스트(세계 기독교 박해지수)란 무엇인가?

월드와치리스트는 1993년 1월에 처음 산출되었습니다. 각 국가의 박해지수는 일반적으로 폭력과 압박의 정도를 조사하며, 특히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삶의 5가지 영역(개인, 가정, 공동체, 국가, 교회)에서 느끼는 압박의 정도를 수치화 합니다. 이 조사에는 해당 국가 네트워크, 연구원, 외부 전문가 및 박해 분석가들이 참여하여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보입력 기준을 체계화하여 국가별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연구방법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매년 4,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는 국제종교자유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뢰하여 감사를 받으므로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연구된 자료는 국가별 순위목록, 국가별 자료, 홍보자료 등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픈도어 지도부와 현장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필요성을 볼 수 있게 도왔으며, 사역지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픈도어 사역은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가 발표된 이래로 공산권에서 이슬람권, 그리고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 한국교회 선교의 전략적 동반자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상위 50개국의 분포와 높은 수준의 박해정도를 보이는 국가들을 보면 한국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선교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40장에 분포된 지역국가들을 살펴보면 이 지역의 기독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 있는 북한을 위시하여 중국의 통제는 정보 IT 기술과 결합하여 그 감시 방법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선교사 추방, 입국거부, 외부교회와의 교류 차단, 교회폐쇄, 기독교인에 대한 폭행, 차별, 압박 등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며, 복음에 대한 적대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선교방향에 대한 전략적 선택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지난 70여년 동안 공산권과 이슬람권에서 안전하게 사역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것은 오픈도어만의 독특한 선교구조에서 기인합니다. 첫째는 박해 받는 교회와 사역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현장 사역팀과 이를 지원하는 개발팀을 구분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둘째는 박해현장이 선교사들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임으로 현지교회(내부자)에 의해 주도되는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는 동반자 선교입니다. 셋째는 개발팀과 현장 사역팀을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촉진하는 전문화된 본부 기능입니다.

한국오픈도어는 한국교회가 오픈도어 사역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구축되어 있는 오픈도어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도울 수 있습니다. 전세계 70여 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오픈도어 사역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선교현장의 맞춤형 프로젝트의 재정적 지원에 전적,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든 사역보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전략적 동반자 선교의 장점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도, 전세계 70여국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세계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궁극적인 세계선교 전략은 박해 받는 교회를 격려하고 훈련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픈도어는 지금 선교사들의 추방과 입국 거부 등 새로운 선교적 도전 앞에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한국교회 선교에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3. 지역교회의 오픈도어선교 참여방법

한국교회는 다른 어떤 나라의 교회보다도 적극적으로 세계선교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로 세계선교의 패러다임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면서 지난6월 개최된 제8차 NCOWE대회에서 외부자 중심의 선교에서 내부자 중심의 선교로의 방향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선교모델이 바로 박해 받는 교회를 섬겨온 오픈도어의 전략적 동반자 선교전략입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사역이 한국에서 30년이 되어 가지만 오픈도어 선교전략이 한국교회에게 아직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오픈도어 사역에 협력하면서 그동안 오픈도어가 구축해온 현지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내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걸음은 전세계 박해현장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교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박해현장의 목소리를 오픈도어 위클리예 담았습니다. 미래지향적 가치를 살려, 모바일 매거진 개념으로 카카오 채널 기반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내용은 선교사, 목회자, 기도 인도자들이 선교현장의 상황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월드와치리스트의 전문분석가들이 정리한 국가별 핵심자료들을 수록했습니다.

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선교현장의 변화를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최신 박해뉴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해를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는 박해 받는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오픈도어의 동행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교현장을 방문하는 비전트립과 오픈도어 동행사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해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박해현장을 찾아 가는 것은 때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들이 외롭게 홀로 싸우고 있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때문에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세째는 지역교회가 오픈도어 선교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현장은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지만 또한 지역교회의 선교현장 참여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연결시켜 나갑니다. 교회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박해 현장의 소식을 나누고 사역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월드와치리스트 지역교회 순회 설명회는 단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오픈도어선교회가 이 땅의 고난 받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미래선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박해 받는 교회의 동반자가 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전략적 동반자 선교를 실행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 자리에 지역교회 목회자, 선교담당 관계자, 기도하는 용사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